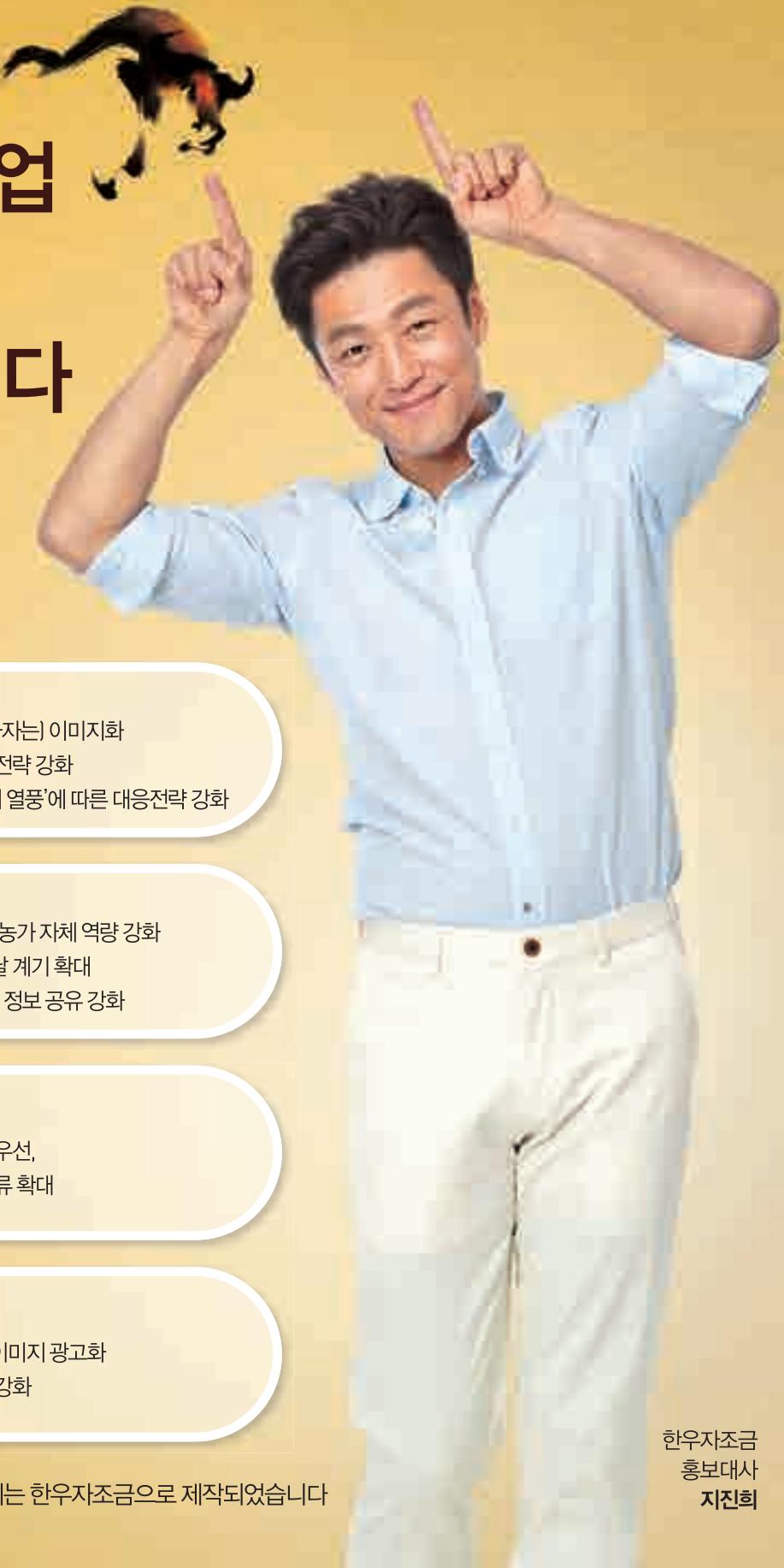


2017년 한우자조금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한우고기! 소비자와 함께!(하자는) 이미지화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 강화
'청탁금지법', '고지방 식단의 열풍'에 따른 대응전략 강화


농가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농가 자체 역량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계기 확대
한우농가와 한우자조금과의 정보 공유 강화


단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산업 우선,
농가이익 중심의 지원 및 교류 확대


홍보

한우가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광고화
연령별 소비층에 맞는 홍보 강화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홍보대사
지진희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7년 1월 소식

자조금 소식

2016 홍콩 한우 페스티벌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 결과

한우 이모저모

한우의 가공과 유통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7



12



08



20



26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7년 1월 소식

신년사

0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05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06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자조금 소식

07 부산 한우 반값 숯불구이 축제

08 2016 홍콩 한우 페스티벌

10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 결과

12 한우산업발전 간담회

13 후계축산인 교육 외

14 제4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외

15 연말 한우고기 할인판매 대축제 외

16 한우자조금사무국의 2016년 단상

17 TV방송 속 '한우의 영양'

한우 이모저모

18 컨설팅 연재⑩ 한우의 가공과 유통

농장 탐방

20 경기 평택시 대림농장의 정통대 대표

한우 시황

22 1월 한우 도매가격 전망

뉴스 클리핑

24 12월의 한우 관련 이슈

포토 뉴스

26 따뜻한 정성과 온기를 담아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2017.1 통권 제135호

비매품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유통부 전화 02-522-3606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인쇄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

존경하는 전국의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관계자, 소비자 여러분!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자 오덕(五德)을 갖춘 닭의 해를 맞아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 공무원들도 각오를 새롭게 다져, 농업·축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국가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 한우고기 등 농식품 분야 수출을 늘렸습니다. 농업의 첨단화를 도모해 ICT 융복합 정책 등을 통해 스마트팜 보급이 크게 늘어났고, 6차 산업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6차산업 창업과 농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대했습니다. 귀농·귀촌도 확대되어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AI 등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는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 구축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당면 현안인 가축 질병, 쌀값 하락, 청탁금지법 시행 등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축 질병 방지를 위해 농가책임 방역체계 구축, 예찰 및 초동대응 강화, 동물 약품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한우농가와 관계자와 여러분!

큰 위기 앞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은 마음먹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계이불사(鍥而不舍)’의 자세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어떠한 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한우를 위하여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인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우리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은 매년 고비를 겪었지만, 작년 한 해는 김영란법으로 특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진행해 온 할인판매, 한우 직거래장터 외에도 유통바이어대회를 개최해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우 홍콩 수출 1주년을 맞아 홍콩 바이어 대상 한우요리 시연회와 홍콩 현지에서의 한우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한우 수출길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13억 중국시장 관문인 홍콩 수출의 성공적인 여세를 몰아 한우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올 한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한우는 국내 소비자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육류로 하는 ‘고지방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키면서 한우의 우수성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 많은 언론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1일인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에 소비자 참여 형태의 속불구이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행사 3일 동안 10만 명이 다녀가고, 전국 행사장에서 총 186억 원어치의 한우가 팔리는 이례적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연말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우는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는 식품 그 이상입니다.

한우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존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우자조금은 올해에도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한우의 대표성을 포함한 한우만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쓸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한우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가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등 공신입니다. 한우자조금 역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밝은 새해만큼이나 한우산업과 한우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이 우뚝 솟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이근수



謹 賀 新 年

김영란법 고쳐 한우산업 안정시켜야!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새해는 한우농가가 더욱 행복해지고 한우산업이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국만큼이나 한우산업에도 엄청난 고난을 안겨 주었습니다. 모처럼 회복된 한우산업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300만 농민의 외침을 무시한 채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반 토막나고, 책임져야 할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 무책임한 자세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 한우산업의 우선 과제로는 소비둔화의 원인인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하며, 침체된 경기둔화로 위축된 소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되살려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한우협회가 끈질긴 노력으로 공판장 부산물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 부산물 가격을 2~3배 올려 받았듯이 올해도 농협의 공판장과 사료 공장

에 농가이익 우선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경매시장과 사료 공장의 가격을 선도함으로써 농가 생산비 절감에 매진하여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한 현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며, 강직한 소의 뚝심으로 역경을 헤쳐 나갈 지혜가 절실했을 때입니다.

한우협회는 민족산업 한우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한우산업의 안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5천 년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한우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명절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전국적으로 더욱 크게 발전시킬 것이며, 명품 한우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하면 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한우농가 모두 머리를 맞대어 힘을 합친다면 한우산업은 민족산업으로서 발돋움하여 품격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생산자 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올해에도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새 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한우협회장
김홍길



부산 한우 반값 숯불구이 축제

지난 12월 23일부터 25일, 부산 해운대구 KNN광장(센텀시티역)에서 '한우 반값 숯불구이 축제'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한우 반값 숯불구이 축제'가 대성공을 거둠에 따라 긴급 예산을 이용해 부산지역에서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등으로 소값이 폭락하고 있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를 되살리자는 취지였다. 이번 부산 행사 역시 3일간 8만 3천여 명이 찾아와 9억 8백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등심을 100g당 1등급 5,000원, 1+등급 6,500원, 1++등급 7,800원, 국거리와 불고기를 1등급 2,900원, 1+등급 3,200원, 1++등급 3,500원에 판매했으며, 숯불구이존에서는 1등급 한우 등심 1인분(200g)을 단돈 1만 원에 판매하고, 현장에서 구입한 한우고기를 숯불이 준비된 테이블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크 시식과 다양한 공연 등이 열렸으며, 성탄절을 맞이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 훈훈한 연말 분위기가 이어졌다. ■



홍콩 한우 수출 1주년, 2016 홍콩 한우 페스티벌

한우자조금은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 홍콩 한우 수출 1주년을 맞아 홍콩에 방문해 현지 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과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콩 한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홍콩 한우 페스티벌은 현재 홍콩이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데에서 더욱 의미있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홍콩총영사관, 홍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홍콩의 한우 유통업체들과의 업무 체결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12월 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홍콩 현지 유통바이어와 구매 담당자, 홍콩 현지 언론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수



출 1주년 유통 바이어 초청 리셉션'도 그 중 하나의 행사다. 리셉션에서는 한우 공동 로고를 활용하기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이 소개됐다. 한우자조금은 'KOREAN BEEF HANWOO' 공동로고 사

1. 한우자조금이 홍콩 현지 8개 유통업체와 협약 체결 및 인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2. 홍콩 유명 셰프의 한우 요리시연
3. 축산물 이력제 과정 소개



4. 유통 바이어와 구매 담당자, 언론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한 '수출 1주년 유통 바이어 초청 리셉션'
- 5, 6. 한우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

용 협약식을 체결하고 한우 공동로고 인증서를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홍콩 수입업체들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7일간을 한우 프로모션 주간으로 설정해 홍콩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행사가 이어졌다. 홍콩 유명 셰프를 통한 한우 요리 시연과 한우 요리 및 부위별 전시, 이력추적 및 등급판정 등 한우 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연, 파워 블로거 초청 쿠킹클래스, 유통 바이어들을 위한 한우 요리 시식행사, 한우 판매 레스토랑에서 한우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증정 프로모션, 국내 프리미엄 소주 업체인 '화요'와의 공동 마케팅 행사, 한우시식행사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가 펼쳐졌다.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우 소비의 유통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홍콩 수출과 같은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려 홍콩시장에서 성공을 이루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우의 이미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이번 행사를 소감을 전했다. ■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 결과

한우자조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28개의 선출구에서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결과 총 250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대의원선거에는 총 26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경기도 안성시 선출구를 포함해 119개의 선출구에서 같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가평군	1	김기후
김포시 외 9	1	박경호
남양주시 외 4	1	이연복
양주 외 3	1	김남강
안성시	3	김학범, 이형우, 이진철
양평군	1	김상열
여주군	1	지웅길
이천시	1	조영훈
용인시	1	신동규
파주시	1	박노복
연천군	1	홍석준
평택시	1	이해민
포천시	1	박봉선
화성시 외 2	2	김용주, 김정균
인천시	1	김학수
합계	18명	

대전/세종/충남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계룡시/논산시	2	이진철, 한정현
공주시	4	박한철, 경민수, 공명식, 전항구
금산군	1	이한구
당진시	3	김범석, 김석남, 김충완
보령시	2	황세연, 김일태
부여군	2	김영운, 임덕순
서산시	3	이용철, 박영수, 김춘배
서천군	1	최명식
아산시	1	박응천
예산군	4	홍한정, 최병렬, 최영목, 김윤종
천안시	1	김영곤
청양군	2	노중호, 최종만
태안군	1	장대옥
홍성군	5	박종대, 이충식, 이진우, 박운규, 이지훈
대전/세종시	2	장형순, 유철상
합계	34명	

무투표 당선됐다.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의 임기는 4년(2017. 2. 16~2021. 2. 15)이며, 한우자조금의 사업 계획·편성 및 결산 등 자조금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 총 250명의 제4기 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원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강릉시	1	신숙승
고성군	1	김영철
동해/삼척/태백시	1	김창기
속초시/양양군	1	박병인
양구군	1	김근중
영월군	1	최병휘
정선군	1	김남석
평창군	1	김용관
원주시	1	이진원
인제군	1	박완영
철원군	1	구동서
춘천시	1	박영철
화천군	1	윤예상
홍천군	2	신재영, 김상록
횡성군	4	엄광섭, 박관수, 김근배, 김동우
합계	19명	

충북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괴산군/증평군	2	김은수, 김홍기
단양군/제천시	2	유병희, 박병남
보은군	2	조위필, 박금용
영동군	1	박광준
옥천군	2	이완순, 전상현
음성군	1	김명길
진천군	1	박승길
청주 청원시	3	김용희, 강석준, 류근태
충주시	2	한영섭, 김문흠
합계	16명	

전북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고창군	2	김문석, 이경호
군산시	1	박창규
익산시	2	진택섭, 이근수
김제시	3	정기섭, 고상현, 이판수
남원시	2	강상용, 형종우
무주군	1	신기수
부안군	2	김귀석, 김대중
순창군	1	이양훈
완주군/전주시	3	김영만, 유풍준, 박일진
임실군	1	김필기
장수군	3	송제근, 양석용, 소순배
정읍시	6	김태선, 김치열, 이태진, 한양수, 오진현, 나희주
진안군	1	성희수
합계	28명	

대구/경북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경산시	3	천효근, 이상언, 채희락
경주시	7	이관도, 이영철, 장상규, 전상대, 최삼호 김영일, 이언규
고령군	2	서교희, 양성훈
성주군	1	문정식
구미시	3	정강식, 하태권, 김재기
칠곡군	1	장금현
군위군	1	정재군
김천시	2	김홍수, 장순찬
문경시	2	배용덕, 장성조
봉화군	2	문형재, 김삼룡
안동시	3	박종칠, 이자환, 이승택
상주시	5	성영욱, 손우빈, 이홍규, 정영섭, 김윤식
영덕군	1	주재규
울진군	1	주진광
영양군/청송군	1	박종국
영주시	4	김삼주, 장이구, 송무찬, 이시택
영천시	3	조규수, 이상화, 이창훈
예천군	4	유재택, 윤홍식, 우병국, 김달년
울릉군/포항시	2	배남수, 이동활
의성군	3	김홍길, 신종경, 박효발
청도군	2	김병우, 김효태
대구시	1	조우현
합계	54명	

제주지역 대의원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서귀포시	1	김맹종
제주시	1	김병학
합계	2명	

광주/전남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강진군	3	마상배, 김명환, 김병림
완도군	1	최형두
고흥군	4	신건호, 정상수, 송채기, 류중원
곡성군	1	권영태
광양시/순천시	2	박철규, 박건식
구례군	1	이용식
담양시	2	추연종, 김옥범
목포시/무안군	3	문만식, 김시호, 고봉석
보성군	2	김동준, 안규상
신안군	1	오배택
여수시	1	김성인
영광군	2	김형주, 이강운
영암군	3	임정균, 김병권, 안상길
장성군	2	김재영, 이윤식
장흥군	5	고재국, 안금수, 김일진, 김선봉, 장영철
진도군/해남군	3	김예종, 김성준, 민경천
함평군	3	김영인, 김낙현, 김상모
화순군	2	정삼차, 김기열
나주시/광주시	4	임동권, 김영자, 김장주, 문인종
합계	45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선출구)	대의원수	당선자
거제시/통영시	1	최탁수
거창군	3	이현태, 최동윤, 최준규
고성군	2	이희대, 천홍렬
남해군	2	김권호, 김호경
밀양시	3	유종기, 박용달, 김상기
사천시	1	이상훈
산청군	1	이달규
의령군	2	안은달, 최동수
진주시	1	정현옥
창녕군	2	윤태한, 이춘기
창원시	1	김종원
하동군	1	이영주
함안군	1	강호경
함양군	1	박종천
합천군	5	김종배, 박덕기, 이도분, 김용욱, 이판경
김해시	2	하봉호, 하봉조
양산시/부산시	1	안홍태
울산시	4	김일복, 윤주보, 조재근, 정인철
합계	34명	

한우산업발전 간담회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2월 6, 7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시 스타리조트에서 협회 전·현직 임원 및 축협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산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규석 고문은 “한우산업이 어렵지만 오늘 모인 전국의 한우지도자들이 뭉쳐 노력한다면 한우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올해 도축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이 36% 대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에 1등급 이상 한우를 몇 년째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우 학교급식이 전국적

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 한우고기 소비를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우고기가 명품 고급화에 치중하는 사 이 수입육에 저가 소고기 시장을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비거세우를 단기간 비육해 생산비를 낮추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블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따라 ‘소 도체등급을 마블링으로 세밀화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량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하며,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한우고기 홍보 시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식행사 시 품목을 불고기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등심 등 구이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

후계축산인 교육

지난 11월 23~25일, 농협수안보수련원에서 후계축산인을 대상으로 2박 3일에 걸쳐 이론 교육이 실시된 데 이어, 12월 1~2일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실습교육이 실시됐다. 이론교육은 국내 선진농가와 다른 후계축산인의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사육단계별 사양, 개량, 질병관리, 한우경영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계축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양도, 소득세 등 세무 관련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실습교육에서는 소두 마리를 통해 교육생이 직접 인공수정 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



여성한우아카데미 교육



지난 12월 1~2일에는 전남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전남·전북 지역 여성한우농가 40명을 대상으로 한우아카데미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한우자조금 사업 설명, 한우 암소개량 및 사양관리, 송아지 질병관리 등 한우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 등록제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여농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4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지난 12월 5일,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는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최근 하락세에 있는 한우 가격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량만 고려해 책정하고 있는 기준의 목표 두수에 대해 소비자의 소비 욕구와 유통업체 재고량 등 소비량을 고려한 실질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우 고급육 전략에 대해 비거세우나 반거세우 등 생산비가 저렴한 한우육을 생산해 수입육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한우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냉동육이 수출됨으로 인해 프리미엄 이미지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우고기 수출이 정착될 때까지는 냉동육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

한우수출분과위원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제2축산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한우 냉동육 수출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



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냉동육 수출 금지 규정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냉동육 수출업체에 농식품부의 관련 규정을 보내고 준수요청 문서를 시행했다. 이날 냉동육 수출업체에서는 ‘냉동육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른 수출업체에서는 ‘마카오 등 여러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동육 수출은 한우 고급육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수출분과 위원회는 ‘한우고기 수출에 있어 공동로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따라야 한우 수출 물류비 지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말 한우고기 할인판매 대축제(12. 8~11)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이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농협 계통 매장, 대형 유통점,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총 1,247개 매장에서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했다.

이번 할인판매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침체된 한우 소비시장 활성화와 소값 안정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줄어든 외식소비를 가정 내 소비를 통해 회

복한다는 취지에 따라, 가정소비 주품목인 불고기와 국거리 100g당 1등급 2,900원, 1+등급 3,200원, 1++등급 3,500원에 판매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소비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에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대적인 할인판매로 소비를 거양하는 한편 소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년맞이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12. 26~31)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연말을 앞두고 소비자 대상으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가 롯데슈퍼(LOTTE super) 전점에서 ‘2016 송년맞이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 전문식당 및 선물 수요 감소 등 한우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한우고기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을 위해 송년맞이 한우고기 할인판매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1, 2등급의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를 100g당 1,980원에 판매해 시중 가격 대비 반값 이하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 연말 한우고기 대축제 성원에 힘입어 2016년 마지막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개최하게 됐다.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많은 관심이 2017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우자조금사무국의 2016년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단상(斷想)



⑤ 소비촉진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마련을 위한 “유통부” 신설(8월)



⑥ 한우를 우리가 연구하는 “한우연구소 설립” 토대 마련



⑪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축산물자조금연합 회장 파선



① “한우의 홍콩수출 정착”, 교두보를 통한 동남아권 진출 모색



④ “대기업 한우산업진출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⑦ “한우자조금 홍보 영상제작”으로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제고



⑩ 제4기 대의원 선거 및 선출



② “한우먹는 날의 명절화” (숯불구이 축제)로 또 다른 소비책 강구



③ 농가, 소비촉진행사 65억 원 투입, 소비자에 사회공헌



⑧ 유통지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변화에 앞장



⑨ 한우관련 광고 대·내외 수상 (3개 대외기관)

TV방송 속 ‘한우의 영양’

추운 날씨를 이기는 한우의 영양. 연말을 맞아 한우의 풍요롭고 건강한 이미지가 빛을 발했다.



홍콩 한우 페스티벌에서 찾는 한우 수출의 길

12월 12일 방송된 MBC <오늘 저녁>에서는 홍콩을 사로잡은 한우의 모습이 소개됐다. 한우 수출 1주년을 기념해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 한우 페스티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홍콩 파워 블로거들이 침석한 한우 쿠킹 클래스를 비롯하여 1++한우를 이용한 한우 요리 시연회 등이 진행돼 세계로 나아가는 한우의 모습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우 등급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제’가 소개되기도 했다.

겨울 특별 건강식 한우, 약이 되다

추운 겨울철, 한우요리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풍요로운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영됐다. 12월 12일에 방송된 TV조선 <광화문의 아침> 속 풍경이다. 연말을 맞이해 다함께 먹기 좋은 한우 불고기 전골, 설도를 이용한 한우 찹쌀 구이, 아이들 간식으로도, 어른들 술안주로도 좋은 한우 꼬치구이 등 다양한 한우요리의 조리법이 소개됐다. 또한 <헬스조선> 이금숙 의학전문 기자와 함께 한

우와 사골의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빙판길에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율이 높은 겨울철, 노년층과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골국이 소개됐다. 이금숙 기자는 ‘혈액이 선명하고 연골이 많으며, 뼈와 골수 사이 경계가 뚜렷한 단면을 가진 사골이 우수하다’는 등의 한우사골에 대한 정보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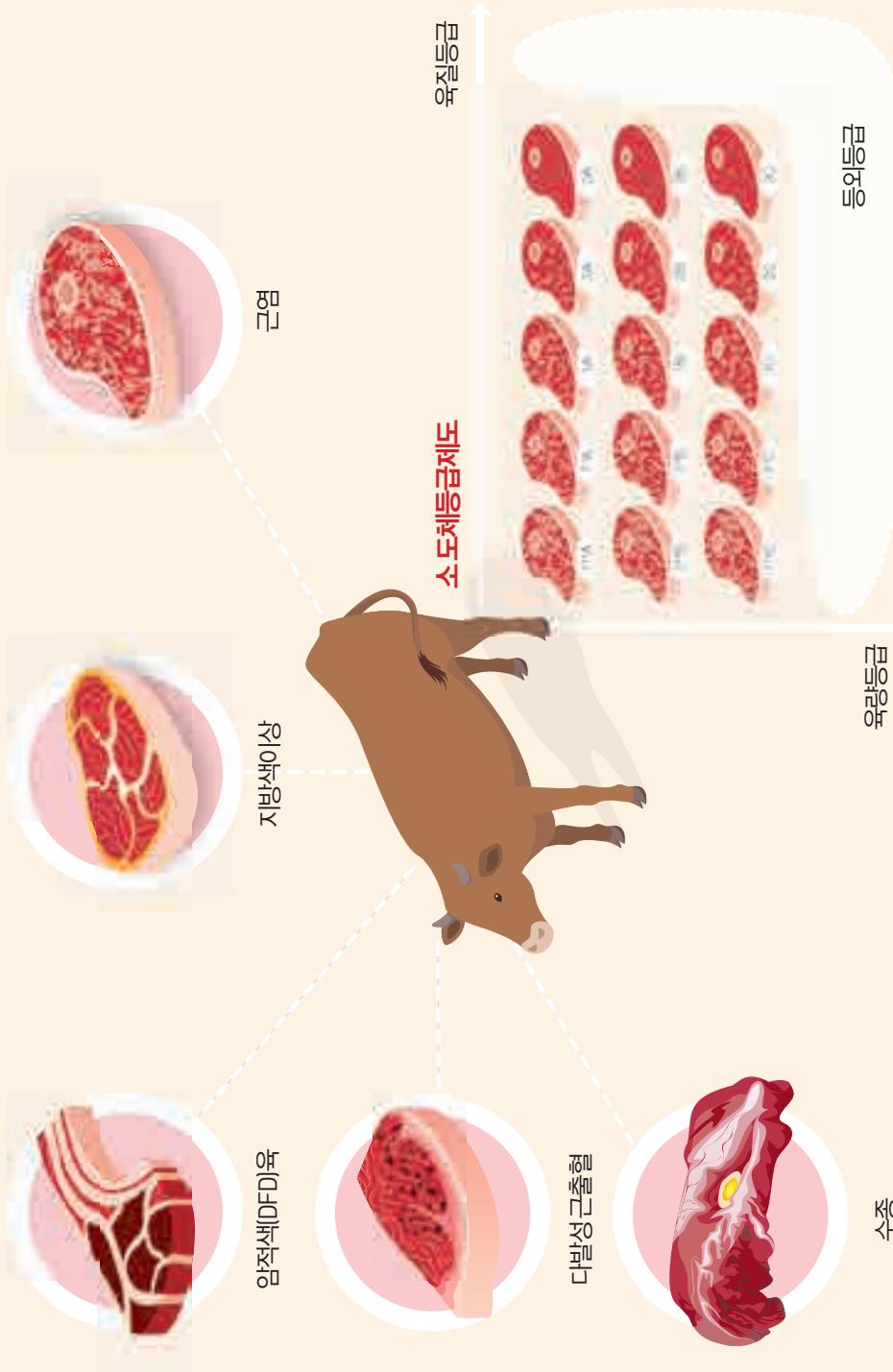
즐거운 순간에 늘 함께하는 우리 한우

11월 30일,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라디오 <매일 그대와 유열입니다> 공개방송에도 한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은이와 이문세, 부활 등이 참여해 87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한 날 특집 공개방송에서는 ‘늘 함께하는 우리 한우’라는 문구와 함께 한우가 소개됐다.

12월 1일 방송된 채널A <싱데렐라>에서는 송년회 분위기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깜짝 이벤트 경품으로 한우고기세트가 주어져 참여자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

한우컨설팅 연재 ⑩ 한우의 가공과 유통

한우를 도축하면 가장 먼저 등급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숙성 과정을 거치며 연도와 풍미 등이 향상될 수 있다.



소 도체등급제도

한우 등급판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기준 등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때 이상육 여부는 기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소고기의 등급은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육질 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따라 1++, 1+, 1, 2, 3등급으로 나누며, 특히 근내지방도에 의해 구분된다. 1번은 3등급, 2-3번은 2등급, 4-5번은 1등급, 6-7번은 1+등급, 8-9번은 1++ 등급으로 예비판정한다. 여기에 육색이나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육량 등급은 도체중과 등지방두께, 배

최장근단면적을 종합해 A, B, C등급으로 판정한다. 반면, 육질과 육량등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등외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성숙도 구분이 8~9번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육 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 육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도체중량이 150kg 미만인 애소한 도체로서 비육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자해나 회재 등으로 인해 냉동도체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도체 등이다.

이상육 발생종류와 특징

암적색(DFD)육

'Dark(어둡고) Firm(단단하며) Dry(건조한)'라는 의미로 육색이 어둡고 단단하며 표면은 건조하고 만지면 끈적거린다. 초종 산도 pH는 6.0 이상으로, 강직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암적색육은 도축 시 근육의 낮은 글리코겐이 적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은 운송 시의 고로, 절식, 공포와 환경 온도, 동물 간투쟁 등은 근육 중 글리코겐 소비를 일으킨다. 암적색육의 특징은 후시분체(뒷다리)나 배 최장근(등심)에서 가장 잘 발견된다.

다발성근출혈

근육 내에 반점 모양의 검은 혈액응고물이 얼룩처럼 보이는 고기이다. 금격히 높은 혈압이 부하되어 근육에 모세혈관이 파괴돼 출혈하는 현상이다. 발생원인은 출하 전 사료에 식염 등을 침가하는 경우나 수송 스트레스, 실신 후 방혈까지의 시간 지연 등으로 주성되고 있다.

수종

세포간격과 체공에 여분의 조직액이 쌓인 상태를 말한다. 운송이나 계류, 도축 시 상처나 근내지방 축적을 위한 바티민A 결핍에 의해 발생한다.

숙성에 의한 연도 및 풍미 향상

소고기의 맛은 근내지방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한 정도(연도) 역시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기를 사후강직이 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자체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고기의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이 분해됨으로써 연도와 풍미가 향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숙성기간 동안 진공포장해 0°C 부근에서 15~20일 정도 숙성하면 연도가 좋아지고 풍미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가TMR 생산으로 사료비 30% 절감 경기 평택시 대림농장의 정홍대 대표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합비를 직접 짜 자가TMR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사료비를 30% 절감하고 육질등급도 향상되는 등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 전공 살리기 위해 20년 전 귀농

대림농장의 정홍대 대표는 영남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식품회사를 다니던 중 IMF를 맞았다. 이후 전공을 살리고자 귀농을 결심한 뒤, 낮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는 평택으로 내려와 한우 3두를 사육하기 시작하며 귀농생활을 시작했다. 귀농한 지 20년이 지난 정홍대 대표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교포리 소재 대림농장에서 한우 150여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다. 정홍대 대표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가TMR을 생산해 한우에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육질 등급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자가TMR 생산, 이제는 자신 있어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에게 배합비 산정 방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부산물을 활용하면서도 한우의 성장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영양성분의 배합비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성기에는 알팔파와 티모시 등의 전초를 중심으로 넣어주고, 비육기에는 벗짚과 라이그라스 등 짚 종류를 중심으로 넣어주는 것이 그만의 노하우. 여기에 미강, 깻묵, 옥수수, 소맥피, 버섯배지 등을 넣어 준다. 또한, 미생물과 비타민제, 석회석, 소금, 중조, 당밀, 비지 등 여러 가지를 첨가해 주는데 이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산한 TMR을 발효시키면 TMF가 된다. 정홍대 대표는 전체 사육두수가 60여 두 이상이면 자가TMR을 시작해도 경제성이 있으며, 100두 이상이면 무조건 자가TMR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료비 30% 정도 절감과 육질 등급도 향상

TMR 생산 시 발효를 통해 소들의 소화율을 높여 비료비를 30% 이상 절감시킬 수 있다. 거세우 기준으로 총 사료비가 월 11~12만 원으로 절감될 뿐만 아니라 육질 향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비육우의 경우 1++등급 20%, 1+등급 40%, 1등급 30%로 1등급 이상이 90% 이상 나오고 육량등급도 A등급 70%, B등급 20%로 A와 B등급이 많이 나온다. 출하체중은 평균 29개월에 자육 440 kg 정도다. 암소의 경우, 비육출하 할 때 비육이 잘 되고 전체적으로 육질 등급이 한 등급 정도씩 향상되어 1등급이 70%, 1+등급은 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한우 더 사육 계획

정홍대 대표는 ‘최근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사료비를 절감하고 육질 등급 개선에 신경쓰면 앞으로도 한우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한우를 더 사육하다 후계자인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줄 계획이다.



자가TMR은 소들의 소화흡수율을 높여 사료비가 절감된다.

자가TMR 생산 준비사항과 주의사항

준비사항

- 1) 주위에서 꾸준히 구할 수 있는 원료와 가격을 따져본다.
- 2) 선택한 원료에 맞게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배합비를 산출한다.
- 3) TMR배합기를 사육규모에 알맞은 크기로 구입한다.
- 4) 부산물 등 원료를 보관하고 TMR을 발효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주의사항

- 사료의 원료가 자주 바뀌는 것은 지양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바실러스나 효모, 유산균 등과 당밀 등을 잘 섞어 미생물을 충분히 배양해 넣는다.
- TMR을 여름철에는 3~7일, 겨울철에는 14일 정도 발효시켜준다.
- 미량광물질 등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이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해 준다.

1월 축산관측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2월 대비 약보합 전망

사육 전망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올해와 비슷할 전망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255만 8천 마리보다 증가한 256만 2천 마리. 이중 가임암소는 113만 마리, 내년 3월에는 247만 마리로 전망

공급 전망

● 1~2월 소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한우 도축은 암소와 수소 출하 감소로 1~11월 전년 동기간보다 17.7% 감소한 66만 6천 마리, 12월(1~21일) 한우 도축은 46,973마리로 전년 동기간 47,953마리보다 2.0% 감소
- 사육 마릿수 감소로 1~2월 도축은 전년 동기간보다 7% 내외 감소 전망. 소고기 수입량은 1~11월 전년 동기간보다 20.5% 증가한 32만 2천 톤

가격 전망

● 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수요 감소로 약세 전망

- 12월(1~23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0.1% 하락한 kg 당 15,668원
- 도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2월과 비슷한 수준인 16,000원 전망

- 1월 설 성수기 한우 고기 수요 불확실성 확대
- 단기 할인 행사를 통한 한우 고기 소비 촉진 필요
- 한우 농가 조기 출하 자제, 계획 출하 요망

* 자료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월 한우가격 및 출하동향]

* 12월 26일 기준

구분	평년 ('11~'15)	2015년		2016년		대비(%)	
		11월(A)	12월(B)	11월(C)	12월(D)	C/A	D/B
도축두수(두)	882,436	55,805	60,469	57,114	55,164	2.3	△8.8
경매두수(두)	435,604	30,168	34,584	31,521	31,327	4.5	△9.4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8,198	17,667	16,674	15,745	△8.4
	거세우	14,569	18,609	18,267	17,100	16,212	△8.1
	비거세우	10,624	15,281	15,569	14,328	13,138	△6.2
기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5,857	5,693	5,510	5,602	△5.9
	송아지	1,511	2,563	2,519	2,548	2,600	△0.6
	수	2,045	3,119	3,107	3,177	3,058	1.9
불고기(1등급/kg)	32,690	41,480	41,785	45,849	46,030	10.5	10.2
등심(1등급/kg)	61,957	77,510	77,314	79,529	78,355	2.6	1.3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12월 한우 농가 소득 추정]

* 12월 26일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9,291	6,933	4,848	2,085
1+	16,509	5,933		1,085
1	15,211	5,467		619
2	13,329	4,790		△58
3	11,506	4,135		△713

* 경영비 : 2015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천원/600kg, 통계청)

* 한우 거세 도매가격 기준



* 일일 한우 가격동향은 「한우 키우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방법 「한우 키우기」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 차장의 뉴스 클리핑

HANWOO NEWS



정책소식

- “한우 소비 확대, 투트랙
‘고급육·저지방육’ 전략 시급”
12월 2일 축산신문
- 농협, 농식품부와
‘실속형 축산물 소비경진대회’ 개최
12월 4일 보건뉴스
- 정부 ‘2016~2025년 중장기 가축개량목표’ 설정
12월 5일 농민신문
- 저울 없이 한우 체중 계산 가능해진다
12월 7일 축산신문
- ‘소 값은 내리고 고기 값은 오르고’ 수입고기 강세
12월 12일 MBC
- 이력·도축검사 한눈에… “한우 안심 구매”
12월 14일 문화일보
- 한우, 해외시장 개척해 축산농가 지원한다
12월 16일 MBC
- 소고기 이력제 우수기관 9곳 선정…
전주·김제·완주축협, 천안축협 등
12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

지역소식

- 하동군, 홍콩·마카오서
농특산물 1,450만 달러 수출협약
12월 12일 프라임경제
- 안성맞춤한우,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12월 18일 브릿지경제
- “쇠죽한우는 마블링 적다고?
‘건강 식재료’ 그 이상의 가치”
12월 21일 헤럴드경제
- 대관령 한우, 중국 소비자와 만났다
12월 21일 축산신문
- ‘강원도 한우’ 명품 브랜드 입증
12월 23일 농민신문

한우정보

- 김영란법 영향… 5만 원대 갈비세트
12월 5일 한국경제
- ‘훈밥족’ 공략할 소포장 한우 출시
12월 2일 축산신문
- 육우 경쟁력 방안… 사육농가와 학계 손잡아
12월 5일 채널A
- 김영란법에 한숨 한우소비 촉진 위해 이마트
40% 할인”
12월 7일 한국일보
- 한우, 가격 상승으로 소비 급감… 대형마트 판매
액 수입산에 밀려
12월 7일 동아일보
- 농장에서 식탁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산 한우
12월 7일 헤럴드경제
- 실속형 축산물 소비경진 대회 개최
12월 7일 농수축산신문
- 한우 도매가 곤두박질… 소비자가는 요지부동
12월 8일 SBS
- 홍콩에 한우 수출 1년… 현지서 요리 축제
12월 12일 동아일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콩에서 ‘한우 페스티벌’ 개최
12월 13일 MBN
- 소고기·돼지고기 3만 톤 이상 수입
12월 16일 농수축산신문
- 눈에 아롱아롱… 아롱사태, 면역력 회복에 좋
아… 부채 모양 마블링… 부챗살, 다이어트에 도
움돼
12월 22일 조선일보
- 미생물 발효사료로 한우 350마리 사육
12월 21일 서울신문
- 젖소 어미에서 한우 송아지 태어나
12월 22일 동아일보
- 한우가격 하락요인 ‘김영란법’·‘경기 침체’
12월 30일 축산경제



따뜻한 정성과 온기를 담아

갓 태어난 송아지는 특히 추위에 약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농가는 송아지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온등을 달았다. 누구나 추위에 몸서리치는 한겨울이지만 보온등 아래 만은 온기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 재미있고, 끊임없는 소식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소식지 이벤트'에 사진과 사연, 농장 주소를 남겨주세요. 채택된 사진과 사연을 포토 뉴스에 실어 드립니다.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위원회는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우 산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식지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농가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X 퀴즈

0·X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담아주세요.

Q1



11월 23~25일 부산에서는 '한우 반값 숯불구이 축제'가 열렸다.

Q2



'2016 홍콩 한우 페스티벌'은 홍콩 한우 수출 1주년을 맞아 진행된 행사다.

Q3



제3차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에서 150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 응모하시는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12월호 0·X 퀴즈 사은품 당첨자

김민정(3670)
오진옥(5311)

김휘곤(3311)
임선아(5823)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11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다.

QR코드로 모바일을 사용해 간단히 접속하세요!



애독자 퀴즈의 정답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 내 한우 이벤트 코너 혹은 스마트폰으로<인터넷 접속- QR코드 스캐너>검색-해당 어플 설치> 후 QR 코드를 찍어 접속하신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합니다.